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은호윤
(전북대학교)

Eun, Hoyoon. (2018). A study of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of university learners in Korea in English reading cour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1), 199-218.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arning strategies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lish reading course and their self-efficacy, based on their English reading proficiency. Three learning strategy factors(Cognitive, Global reading and Memory strategies) and three self-efficacy factors(Self-confidence, Self-control and Task- difficulty)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Opinion questionnaires from 178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English reading course in Jeonbuk province were collected for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8.0.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referred learning strategy was Global reading strategy. Next, students of intermediate level used the most various strategi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their self-efficacy appeared normal. Third, Global reading strategy influenced three factors of self-efficacy the most. The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is that teaching methods to improve a variety of learning strategies and promote stable self-efficacy should be developed.

주제어(Key Words): 영어읽기(English reading),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1. 서론

영어 학습의 최종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지만, EFL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학습자들이 쓰기와 말하기를 연습할 기회를 만나는 기회는 좀처럼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은 EFL 상황에서 학습하기가 비교적 쉬운 읽기와 듣기를 충분히 숙달한 후에, 원어민을 만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연습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어교육에서는 읽기의 학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숙달된 학습자는 듣기 능력을 비교적 원활하게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다(송지영, 2017; 최윤희, 2012). 즉, 읽기 능력은 영어학습에 필요한 여러 과제수행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활발한 인적교류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획득,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수행 등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Proctor, Carlo, August & Snow, 2005).

최근까지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송지영, 2017; 이명선, 2008; 차경애, 1999; 최윤희, 201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천적인 인지적 요인과 후천적인 정의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지능이나 기억력 같은 학습자의 인지적인 요인보다는, 학습에 대한 동기나 전략, 태도 및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이 영어 학습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아지고 있다(김보민, 2016; 송지영, 2017). 이 정의적 요인은 교육과 환경에 의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래에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own, 2007; Ehrman & Oxford, 1995).

여러 가지 정의적 요인 중에서 본 연구는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였다.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목표어를 숙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을 의미한다(나경희, 2008; Block, 1986; Oxford, 1990). 최근의 연구는 학습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 그렇지 않는 학습자들보다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이명선, 2008; 조영아 · 최훈, 2012). 반면,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말한다. 즉, 학습자의 능력 자체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초, 중, 고등학교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김보민, 2016; 이명선, 2008). 대학교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TOEIC을 공부하는 수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오희정, 2012; 정병삼, 2011).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정식 과목으로 개설된 영어읽기 수업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영어읽기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또 자기효능감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고 또 학습의 최종 결과물인 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어읽기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2. 학습자들의 영어 숙달도의 수준과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전략의 요인들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개념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목표어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 행동 또는 기술을 말하며, 학습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행동이다(Oxford, 1990).

Rubin(1975)은 학습전략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법이나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Wenden(1991)은 학습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을 말하고, 둘째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 즉 전략적 지식을 말한다. 셋째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 이외에 언어 학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ohen(1998)은 학습자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선택되는 과정으로서, 목표어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보유하며 기억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전략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실제적인 행위나 생각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학습전략은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 만들며, 정보 또는 지식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학습전략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크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으로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Bahndura, 1997). 즉,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Kanfer와 Hagerman(1981)은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를 내렸다. Meyer(1992)도 자기효능감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말하였다. 장희정(2005)은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별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기대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상황이나 긴장하는 상황에 처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가 추구하는 행동의 방향뿐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방식과 정서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학습의 성공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개념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학습을 지속하

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영어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2.2.1. 영어 읽기학습전략

영어교육 분야에서 영어읽기와 학습전략에 대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Cziko(1980)는 수준이 다른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각각 다른 읽기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고급수준의 학습자일수록 다양한 읽기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초급수준의 학습자는 담화의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문자 정보를 근거로 하는 상향식 처리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급수준의 학습자는 상향식 처리전략¹⁾과 하향식 처리전략을 모두 사용하면서, 글의 의미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lock(1986)의 연구에서도 고급수준의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지문의 유형과 읽기의 목적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와 세부사항을 구분하고, 또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상하거나 새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원활하게 결합하였다.

이금희(1998)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읽기 전략의 사용과 읽기능력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Song(1999)은 대학생들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읽기전략의 사용, 어휘에 관련된 능력, 문법적인 지식, 학습 동기, 흥미 등의 요인 중에서 읽기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조영아와 최훈(2012)은 대학교의 교양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되는 읽기전략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학습자들 모두 문제해결 전략²⁾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역시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이 다양한 독해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Barnett(1988)는 프랑스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읽기전략의 사용을 학습하게 한 결과를 연구하였는데, 문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억전략을 사용한 학습자와, 학습자가 스

1) 영어 읽기전략은 일반적으로 하향식 과정(top-down processing)과 상향식 과정(bottom-up processing)의 2가지 전략으로 분류한다(Brown, 2001). 하향식 전략 과정에는 글의 목적을 확인하고, 주제의 파악을 위하여 훑어 읽기(scanning), 의미망(semantic networks)을 이용하기, 추측하기,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담화 표지어를 활용하기, 축어적(literal) 의미와 함축적(implicative) 의미의 구별 등이 있다. 반면, 상향식 전략 과정에는 글의 패턴이나 문자소(grapheme) 규칙을 이용하기,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한 글 읽기, 어휘를 분석하기 등이 있다.

2) 문제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ies)은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행동이나 절차로서, 글의 정보를 이해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국지적(local)이고 집중된 전략이다.

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했다고 생각한 학습자일수록 텍스트의 이해도가 높았다. 박은(2016)은 전통적인 해석위주의 읽기방식으로 수업한 집단과 읽기전략을 지도한 집단의 텍스트의 이해도를 비교한 결과 읽기전략을 지도한 집단의 이해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읽기와 학습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읽기전략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읽기전략을 지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더 향상되었다. 고급수준의 학습자일수록 다양한 읽기학습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읽기학습전략의 지도가 읽기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읽기학습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2.2.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여러 방식으로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쉽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명자와 송영명(2005)은 자기효능감이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관련성, 지속성, 전략의 사용, 도움을 요청하기, 과제의 수행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자각하지 못하면, 일련의 보상 또는 주위의 인정이나 칭찬만으로는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수 없다. 또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학습에 성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항상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견해의 연구도 있다. Schunk(1991)는 자기효능감이 주어진 학습 과제의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학습자의 행동에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능력, 결과의 기대, 학습결과의 가치 등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하였다. Zimmerman과 Kitsantas(2005)는 주어진 과제의 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의적 요인 중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학문적인 주목을 받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라고 하겠다(정병삼, 2011). Bahndura(1991)에 의하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은 성공의 경험,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인 각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꾸준한 성공 경험이라고 하겠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영어 읽기수업을 수강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떤 학습전략을 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한 J 대학교에서 2017년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영어 읽기수업을 한 학기³⁾ 동안 수강한 183명의 학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공에 따라서 어떤 학습자는 영어읽기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하였고, 다른 학습자는 선택과목으로 수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학습자들의 특성은 <표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 읽기 능력의 수준별 구성은 고급⁴⁾ 58명(32.6%), 중급 56명(31.5%), 초급 64명(36.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소에 영어와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하여 조사(복수의 응답을 허용)하였는데, '하지 않음'이 82명(46.3%)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타'가 45명(25.4%), '인터넷 강의'가 27명(15.3%), '영어방송'(TV, 라디오 등)이 23명(13.0%), '학원 강의'가 19명(10.7%), '그룹 스터디'가 5명(2.8%)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신의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1점: 매우부족하다, 10점: 최고이다)에서의 평균은 5.12점(sd=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들은 한 주에 3시간씩 총 45시간을 수강하였다.

4) 실험이 이루어진 대학교의 영어읽기수업은 교양과목으로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즉, 영어읽기수업의 학습자의 30%는 A, 30%는 B 그리고 나머지 40%는 C 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성적으로 A 학점을 받은 학습자는 고급, B학점을 받은 학습자는 중급 그리고 C학점 이하를 받은 학습자는 초급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178명은, 5개의 영어읽기수업에서 선정되었는데, 교재는 동일하였고, 교수는 각각 달랐다. 학습자의 수준을 구분하는 평가문제가 동일하지 않았지만, 교양과목으로서 개설된 영어읽기수업의 학습목표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의 능숙도를 구분하였다.

표 1. 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성		N	%
성별	남자	117	65.7
	여자	61	34.3
연령	(Mean±SD)	20.72±2.47	
학년	1학년	103	57.9
	2학년	13	7.3
	3학년	38	21.3
	4학년	24	13.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43	24.2
	자연·공학계열	135	75.8
	예술계열	-	-
영어 읽기 능력	고급	58	32.6
	중급	56	31.5
	초급	64	36.0
영어공부 (복수 응답이 가능)	하지 않음	82	46.3
	인터넷 강의	27	15.3
	학원 강의	19	10.7
	영어방송 (TV, 라디오 등)	23	13.0
	그룹스터디	5	2.8
	기타	45	25.4
학습자 자신이 평가하는 자 신의 영어 능력	(Mean±SD)	5.12±1.90	
전체		170	100.0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영어읽기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학습자들의 기본적인 인구학적인 정보(성별, 나이, 전공 계열, 영어학습 방법, 학습자 자신의 영어실력 수준에 대한 평가)을 묻는 문항들이 있고, 영어읽기 학습전략(23문항), 자기효능감(24문항)에 대한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개의 척도로서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영어읽기 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여러 선행연구⁵⁾에서 발췌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본 논문의 맨 뒷부분에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총 23문항은 3개의 하위요인⁶⁾(인지전략: 5문항, 총체

5) Mokhtari & Sheorey (2002)가 개발한 30문항으로 구성된 MARS (Metacognitive Awareness Reading Strategies Inventor)를 기본으로 하여서, 송지영(2017)의 연구 등에서도 참조하였다.

적 읽기전략: 12문항, 기억전략: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영어읽기 학습 전략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α 값은 .91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α 값은 <표 2>에 나와 있다.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여러 선행연구(7)를 참조하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의 설문지는 3개의 하위요인(8)(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을 설정하여 그 선호도를 물었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α 값은 .962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의 값은 표 2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영어읽기학습전략		23	0.912
인지전략	1,3,6,9,18	5	0.739
총체적 읽기전략	2,4,7,8,11,12,13, 14,16,19,21,22	12	0.842
기억전략	5,10,15,17,20,23	6	0.707
자기효능감		24	0.962
자신감	1,2,4,5,6,9,12, 13,15,16,17,19	12	0.932
자기조절	7,21,22,23,24	5	0.825
과제난이도	3,8,10,11,14,18,20	7	0.894

6)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y)** : 학습자가 학습할 자료를 조직하고 변형하는 전략으로서, 학습할 내용을 선행학습과 연관시키고 언어자료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분류하기, 분석 및 추론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총체적 읽기전략(Global Reading Strategy) : 학습자가 자신의 읽기 활동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신중히 계획된 의도적인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읽기의 목적을 미리 정하기, 글의 길이와 구성을 가늠해보기, 표나 그림을 이용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기억전략(Memory Strategy) : 학습자가 정보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전략으로서, 사교 과정을 연결하기, 이미지나 소리를 이용하기, 복습하기, 동작을 이용하기 등이 있다.

7) Wang(2004)이 개발한 QESE(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Efficacy),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고안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설문지 그리고 김보민(2016)의 연구 등에서 참조하였다.

8) **자신감(Self-confidence)** : 학습자가 자신의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자기조절(Self-control) : 학습자가 자기관찰(self-observation), 자기판단(self-judgement), 자기반성(self-reflection)과 같은 자기통제의 기제(mechanism)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말한다.

과제난이도(Task-difficulty) :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과 비교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Schunk, 1991).

3.3.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분석은 데이터 코딩을 거쳐서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첫째,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둘째, 학습자들의 영어읽기수업에서 읽기에 대한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의 영어읽기 수준에 따라 학습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읽기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읽기학습전략의 3가지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의 3가지 하위요인들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한 학기(15주) 동안 영어 읽기수업이 이루어졌는데, 14주차에 183명의 학습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5부는 제외하고 1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영어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포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체적인 학습전략은 평균 3.23점(sd=0.54)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전략은 총체적 읽기전략으로서 3.31점(sd=0.56)의 평균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는 기억전략이 3.22점(sd=0.61), 그리고 인지전략으로서 3.08점(sd=0.61)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03점(sd=0.66)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하는 하위요인은 자신감으로서 3.10점(sd=0.67)의 평균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선호되는 하위요인은 자기조절로서 3.05점(sd=0.70),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인데 2.88점(sd=0.71)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 영어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의 분포

구분	Mean±SD	Min	Max
영어학습전략	3.23±0.54	1.30	4.65
인지전략	3.08±0.61	1.00	4.60
총체적 읽기전략	3.31±0.56	1.33	4.75
기억전략	3.22±0.61	1.17	5.00
자기효능감	3.03±0.66	1.21	4.75
자신감	3.10±0.67	1.33	4.75
자기조절	3.05±0.70	1.00	5.00
과제난이도	2.88±0.71	1.14	4.71

4.2. 영어읽기능력과 영어학습전략과의 관계

학습자들의 영어읽기능력에 따라서 영어학습전략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다.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전체적인 영어학습전략($F=4.126$, $p=0.018$), 인지전략($F=3.313$, $p=0.039$), 기억전략($F=6.107$, $p=0.003$)은 학습자의 영어읽기수업의 최종 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영어학습전략은 학습자의 영어능력이 중급(3.33 ± 0.47 점)인 경우가 초급(3.08 ± 0.54 점)인 경우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전략은 고급(3.17 ± 0.66 점), 중급(3.17 ± 0.54 점)인 경우가 초급(2.93 ± 0.61 점)인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억전략은 영어성적이 고급(3.33 ± 0.60 점), 중급(3.33 ± 0.57 점)인 경우가 초급(3.01 ± 0.59 점)인 경우보다 그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가장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급수준의 학습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급수준의 학습자의 순서로서 학습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영어 읽기 능력과 학습전략과의 관계

구분	영어 읽기 능력			F	p	Scheffe
	고급a	중급b	초급c			
영어학습전략	3.31±0.57	3.33±0.47	3.08±0.54	4.126*	0.018	c<b
인지전략	3.17±0.66	3.17±0.54	2.93±0.61	3.313*	0.039	c<a,b
총체적 읽기전략	3.36±0.60	3.39±0.51	3.18±0.56	2.511	0.084	
기억전략	3.33±0.60	3.33±0.57	3.01±0.59	6.107**	0.003	c<a,b

* p<0.05, ** p<0.01

4.3.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과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나와 있다.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과의 전체적인 상관계수는 0.502로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습전략의 총체적 읽기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과의 상관계수는 0.579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학습전략의 인지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과의 상관관계도 보통 수준(r=0.479)이었으며, 학습전략의 읽기전략과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와의 상관계수는 0.473으로 그 상관관계는 보통 수준으로 밝혀졌다. 학습전략의 총체적 읽기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자신감과 상관관계 역시 보통 수준(r=0.450)임을 보여주었다.

표 5.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영어학습전략				자기효능감			
	전체	인지전략	읽기전략	기억전략	전체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 난이도
영어학습전략	1							
인지전략	0.844**	1						
총체적 읽기전략	0.967**	0.739**	1					
기억전략	0.904**	0.667**	0.820**	1				
자기효능감	0.502**	0.443**	0.507**	0.397**	1			
자신감	0.442**	0.387**	0.450**	0.345**	0.980**	1		
자기조절	0.563**	0.479**	0.579**	0.442**	0.904**	0.840**	1	
과제난이도	0.482**	0.445**	0.473**	0.391**	0.954**	0.902**	0.808**	1

* p<0.05, ** p<0.01

4.4.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학습전략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3가지 학습전략(인지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기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4.1.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에 사용하는 세 가지 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중에서 총체적 읽기전략은, 학습자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t=3.290$, $p<0.001$)을 보여주었다. 즉, 총체적 읽기전략을 활용하는 계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자신감은 0.515점씩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관련된 선행연구(박은, 2016; 최연희, 2012)의 결과와 대략 일치한다.

표 6.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VIF
	B	S.E.				
인지전략	0.145	0.110	0.133	1.314	0.190	2.256
총체적 읽기전략	0.515	0.157	0.433	3.290**	<0.001	3.828
기억전략	-0.109	0.132	-0.098	-0.827	0.409	3.131

F=15.646, $p<0.001$
 $R^2=0.212$, Adj $R^2=0.199$, Durbin-Watson=1.932

* $p<0.05$, ** $p<0.01$

4.4.2.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영어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인 읽기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기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의 하나인 학습자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나와 있다. 학습전략의 하위요인 중에서 총체적 읽기전략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자기조절에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t=4.860$,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읽기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총체적 읽기전략을 활용하는 계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자기조절에 대한 신념은 0.719점씩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총체적 읽기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학습자들은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7.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VIF
	B	S.E.				
인지전략	0.147	0.104	0.130	1.409	0.161	2.256
총체적 읽기전략	0.719	0.148	0.583	4.860**	<0.001	3.828
기억전략	-0.141	0.125	-0.123	-1.130	0.260	3.131
F=30.599, p<0.001						
R ² =0.345, Adj R ² =0.334, Durbin-Watson=1.968						
* p<0.05, ** p<0.01						

4.4.3.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되는 학습전략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인지전략(t=2.153, p=0.033), 총체적 읽기전략(t=2.643, p=0.009)은 과제난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가 영어읽기수업에서 인지전략을 활용하는 계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학습자가 자기수준에 비교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과제난이도는 0.245점씩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총체적 읽기전략을 활용하는 계수가 1점씩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과제난이도는 0.427점씩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영어학습전략이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VIF
	B	S.E.				
(상수)	0.823	0.283		2.907**	0.004	
인지전략	0.245	0.114	0.213	2.153*	0.033	2.256
총체적 읽기전략	0.427	0.161	0.341	2.643**	0.009	3.828
기억전략	-0.036	0.136	-0.031	-0.262	0.794	3.131
F=18.736, p<0.001						
R ² =0.244, Adj R ² =0.231, Durbin-Watson=1.820						
* p<0.05,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수준의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수행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영어읽기능력의 수준에 따라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는가 또한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전북에 소재한 J 대학교에서 교과과목으로 2017년에 개설된 영어읽기수업을 한 학기(15주) 동안 수강한 178명의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14주차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습자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습전략은 총체적 읽기전략이었고, 다음으로는 기억전략, 그리고 인지전략이었다.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하위요인은 자신감,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하위요인은 자기조절,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가 선호되었다.

둘째, 학습자의 영어읽기의 능숙도의 수준에 따라 어떤 학습전략을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가장 다양하게 학습전략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상급 수준의 학습자, 마지막으로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의 순으로 학습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되는 학습전략과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의 정도는 그 상관계수가 0.502로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인지전략, 총체적 읽기전략, 기억전략)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학습자의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전략의 하위요인은 총체적 읽기전략으로 밝혀졌다. 영어 읽기학습에서 학습자가 만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이나 장애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전략이 총체적 읽기전략이라고 하겠다. 총체적 읽기전략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큰 학습자들은 영어 읽기학습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최윤희, 2012).

영어교육의 최근경향은, 학습자의 지능이나 환경과 같이 이미 결정되어있는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전략이나 자신감과 같이, 교육 또는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후천적인 정의적 요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여러 정의적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최근의 영어교육의 연구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Brown, 2007; Ehrman & Oxford, 1995).

성공적인 영어읽기학습에는 좋은 교재, 경험이 풍부한 교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요인들 중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전략과 탄탄한 자기효능감은, 영어학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읽기능력의 향상에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양한 영어읽기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을 미래의 영어읽기교육의 후속 연구로서 제안한다. 더 좋은 수준의 교재의 개발, 교사의 수준의 향상 등도 물론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영어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강화하는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자인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의 수준을 구분할 때,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교수들은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15주 동안 가르쳤지만,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학습자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보민. (2016). 영어 자기효능감과 영어능력, 학습동기 및 불안감 사이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 39(1), 95-123.
- 나경희. (2008).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독해전략 활용 및 활용에 따른 독해능력의 상관 관계분석. *현대영어영문학*, 52(2), 91-114.
- 박은. (2016). 상호적 읽기방법에 의한 읽기전략 상위인지, 읽기이해 및 어휘학습에의 효과. *교원교육*, 32(2), 67-88.
- 송지영. (2017). *한국대학생의 영어읽기 듣기능력과 학습자 변인: 학습동기, 학습전략,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희정. (2012). 자기효능감과 토익 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24(3), 299-319.
- 이금희. (1998).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읽기과정 모형과 독해전략 사용 및 읽기능력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선. (2008). 독해 전략지도가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자, 송영명. (2005).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업적 동기와 자기평가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53(1), 85-104.
- 장희정. (2005). 체벌에 대한 신념 양육스트레스가 체벌행동을 매개로 아동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 효능감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3), 143-163.
- 조영아, 최훈. (2012). 영어 읽기 전략이 대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어영*

- 문학연구, 38(1), 327-351.
- 정병삼. (2011).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토익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교육평가연구*, 24(2), 377-399.
- 차경애. (1999). *영어읽기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명선. (2008). 독해 전략지도가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희. (2012).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쓰기 통합형 과업 수행에서 전략 사용과 과업 수행. *영어교과교육*, 11(3), 87-107.
- Bah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nett, M. A. (1988). Reading through context: How real and perceived strategy use affects L2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72, 150-160.
- Block, L.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3), 464-494.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New York: Longman.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ew York: Longman.
- Cohen, A. D. (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 Cziko, G. (1980). *Language learning: Insights for learners, teachers, and researchers*. New York: Heinle & Heinle.
- Ehrman, M. E., & Oxford, R. L.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s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1), 67-89.
- Kanfer, F. H., & Hagerman, S. (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 (Ed.),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pp. 143-179). New York: Academic.
- Meyer, W. (1992). Paradoxical effects of praise and blame on perceived abil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 259-283.
- Mokhtari, K., & Sheorey, R. (2002). Measuring ESL students'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3), 2-10.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Proctor, C. P., Carlo, M., August, D., & Snow, C. (2005). Native Spanish-speaking children reading in English: Toward a model of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246-256.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41-51.
-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207-231.
- Song, M. J. (1999). Reading strategies and second language reading ability: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English Teaching*, 54(3), 73-95.
- Wang, C. (2004).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beliefs of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USA.
- Wenden, A. (1991). *Learner strategies for learner autonomy*. New York: Prentice Hall.
- Zimmerman, B. J., & Kitsantas, A. (2005). Homework practic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belief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0(4), 397-417.

부록: 설문지

※ 다음은 영어학습전략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혀 아니다’는 1, ‘매우 그렇다’는 5로 표기하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No	문 항
1	나는 영어로 작성된 지문을 읽을 때 목적을 정하고 읽는다.
2	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
3	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한다.
4	나는 지문을 읽기 전에 그 지문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5	나는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 소리 내어 읽는다.
6	나는 지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내가 그 지문을 읽는 목적과 일치하는지 생각한다.
7	나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천천히 신중하게 읽는다.
8	나는 먼저 길이, 짜임새와 같은 지문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그 지문을 검토한다.
9	나는 지문을 읽다가 집중력이 흐려질 때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지문에 포함된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정보에 표시를 한다.
11	나는 지문의 내용에 따라 읽는 속도를 조절한다.
12	나는 지문을 읽을 때 세밀하게 읽어야 할 부분과 무시해도 좋을 부분을 구분한다.
13	나는 지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과 같은 참고자료를 활용한다.
14	나는 지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지문에 포함된 표,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한다.
15	나는 지문을 읽는 도중 가끔 멈추고 내가 읽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생각해본다.
16	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맥(context)이 주는 단서를 활용한다.
17	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상상해본다.
18	나는 지문에 담긴 정보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19	나는 지문에 담긴 생각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다.
20	나는 지문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 내가 이해한 정도를 스스로 점검한다.
21	나는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 다시 한 번 읽어본다.
22	나는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나 구문의 의미를 추측한다.
23	나는 지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읽는다.

※ 다음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혀 아니다’는 1, ‘매우 그렇다’는 5로 표기하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No	문 항
1	나는 영어로 작성된 글을 이해할 수 있다.
2	나는 영어지문이 포함된 과제를 혼자서 할 수 있다.
3	나는 영어 TV 방송(CNN, VOA, BBC 등)을 이해할 수 있다.
4	나는 실생활에서 영어지문을 읽고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 (예: 가게에서 물건을 사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등)
5	나는 영어로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다.
6	나는 친구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7	나는 영어지문을 읽을 때 잘 모르는 어휘가 발견되면 그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다.
8	나는 영어로 비교적 긴 글(이메일 등)을 작성할 수 있다.
9	나는 방금 습득한 어휘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0	나는 학교생활에 관계있는 대화를 영어로 듣거나 보면 대략 이해할 수 있다.
11	나는 인터넷에서 영어로 작성된 메시지나 뉴스를 이해할 수 있다.
12	나는 교수에게 질문을 영어로 할 수 있다.
13	나는 영어 속어가 포함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4	나는 영어로 만들어진 영화를 한글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다.
15	나는 일반적인 주제(정치, 환경, 역사 등)에 대하여 영어로 토론할 수 있다.
16	나는 교수가 영어로 질문한 것을 이해하고, 영어로 대답할 수 있다.
17	나는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
18	나는 영자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
19	나는 나 자신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다.
20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영어로 작성된 글을 이해할 수 있다.
21	나는 영어로 소통하면서 애매한 표현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22	나는 영어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23	나는 영어로 들은 것을 다시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다.
24	나는 영영사전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은호윤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의전담교수

전화: (063) 270-3199

이메일: hoyooneun@hanmail.net

Received on February 8,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9, 2018

Accepted on March 31, 2018